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성(性)’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김희경 · 박선제 · 권현진 · 김주연 · 다후네스린 · 정연우*
(경북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개념 정의
 - 2.1. 외국인의 정의와 제도적 범주화
 - 2.2. 외국인성(étrangéité)의 개념 정의와 사회적 범주화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3.2. 분석 방법
4. 외국인성 판단의 국가별 특성과 양상
 - 4.1. 응답자의 사회언어학적 배경
 - 4.2. 외국인 지칭어와 인식 분석
 - 4.3. 청각적 언어 단서에 따른 외국인성 판단
5. 결론: 비교 분석을 통한 외국인성의 재정의와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타인을 ‘외국인’으로 인식하는 과정, 즉 외국인성(étrangéit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사회언어학적으로

* 제1저자: 김희경, 공동저자: 박선제, 권현진, 김주연, 다후네스린, 정연우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대학생 각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음성자료 판단 과제를 실시하여 외국인 지칭어, 판단 기준, 청각적 언어 단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적이 네 국가 모두에서 일차적 판단 기준으로 나타났으나, 출생지, 혈통, 거주기간, 언어 등 다양한 요소 또한 외국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발음과 억양·리듬은 네 국가 모두에서 주요 청각적 단서로 작용하였으나, 각 사회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언어적 특징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랐다. 이에 따라 외국인성은 사회적·언어적 단서를 해석하며 타인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개념으로 재정의될 수 있으며,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에서 언어적 단서가 사회적 범주화와 연결되는 방식을 맥락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에] 외국인성, 외국인,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사회언어학

1. 서론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 이동의 증가로 인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다양한 언어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한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성이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해석되며, 때로는 특정한 사회적 범주로 분류되는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사람들이 타인을 인식하고 범주화하는 핵심적 요소로 기능한다. 이는 언어를 고정된 체계로만 보지 않고, 지역적 변이, 사회적 변이, 상황적 변이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사용과 해석의 양상으로 이해하는 사회언어학의 문제의식과 연결된다(Boyer 2017; Gadet 2007). 따라서 언어 사용은 화자의 사회적 위치, 교육 수준, 출신 배경, 소속 집단 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청자가 타인을 특정 범주로 인식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Byram(2006)은 언어가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타인을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 분류하는 도구로도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언어적 차이를 매개로 타인을 '우리'와 구별되는 존재, 이를테면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단순히 국적에 따른 법적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지적 차원에서 구성되는 복합적 현상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외국인에 대한 인식은 제도적 정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 억양, 발음, 말투, 문화적 행동양식 등 다양한 단서를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외국인은 국적, 출생지, 체류자격, 법적 지위와 같은 제도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왔다(김형기·이은채 2025; 손흥기 2023; 이현수 2017). 그러나 실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떤 사람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방식은 제도적 기준과 동일한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국적 이외의 언어적·문화적·사회적 단서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법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억양이나 발음, 이름, 외모, 문화적 배경에 의해 외국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반대로 법적으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언어적·문화적으로는 내부자에 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법적 외국인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 다양한 집단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서종남 2010)는 점은,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분류와 사회적 인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지위와 실제 상호작용 속 판단 사이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기존 연구들은 외국인과 이주민의 법적·제도적 정의(김경환 2021; 김병록 2020; 이현수 2017), 다문화 관련 용어의 혼용(서종남 2010; 이창원 2015), 언어와 정체성의 관계(김혜영 2015; 황동준·김정민 2026) 등을 개별적으로 다루어 왔을 뿐,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을 '외국인'으로 판단하는 과정 자체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러한 인식 양상이 서로 다른 언어·문화권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정의될 뿐 아니라,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범주

화되는지를 사회언어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타인을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 즉 ‘외국인성(étrangéit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외국인성은 법적 국적 범주로서의 외국인 여부를 넘어, 언어적 · 문화적 · 사회적 단서에 의해 타인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분석 개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개념의 이론적 함의와 용어 채택의 타당성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음성자료 판단 과제를 실시하여 외국인성 인식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과 비교 국가 선정의 구체적 근거,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는 연구 방법 장에서 상세히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 대학생들은 ‘외국인’을 어떤 용어로 지칭하며, 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둘째, 이들은 외국인을 판단할 때 국적, 출생지, 외모, 언어, 억양, 문화적 행동양식 중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가.

셋째, 청각적 언어 단서, 특히 발음과 억양은 외국인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각국의 사전적 · 법적 · 제도적 · 행정적 외국인 정의와 실제 사회적 인식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다섯째,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의 사회언어학적 맥락에서 외국인성은 어떻게 재정의될 수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개념 정의

2.1. 외국인의 정의와 제도적 범주화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일차적으로 사전적 정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외국인을 “다른 나라 사람”으로 간결하게 정의

한다.¹⁾ 프랑스어의 'étranger'는 라틴어 'extraneus(바깥의, 외부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전적으로 “다른 국가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낯선 자”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²⁾ 독일어의 'Ausländer' 역시 'aus(밖)'와 'Land(나라)'의 결합으로 “외국 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 정의하며, 국가적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공동체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³⁾ 알제리에서 헌법 상 국어(National Language)이자 공식어(Official Language)인 아랍어로 'أجنبي' (ajnabī)는 “외국인, 타국인, 낯선 사람”을 의미한다.⁴⁾ 특히, 이 단어는 거리감, 분리, 그리고 멀어짐의 의미를 내포하는 어근 (ج ن ب)에서 파생되어 낯설고 거리가 있는 존재라는 공간적, 사회적 함의를 동반한다.⁵⁾ 네 나라의 사전적 의미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어의 '외국인'과 독일어의 'Ausländer'가 국가(國/Land)를 명시적 기준으로 삼는 반면, 프랑스어의 'étranger'와 아랍어의 'أجنبي' (ajnabī)는 국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는 '낯섦' 또는 '외부성'의 의미장을 포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휘가 갖는 의미 차이는 각 언어공동체가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를 개념화하는 방식의 차이를 시사하며,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 즉 각국 대학생들이 외국인을 지칭하는 용어와 그 의미 이해를 비교하는 작업의 출발점이 된다.

한편 법적 차원에서 네 국가는 공통적으로 외국인을 '자국 국적의 부재'라는 기준으로 정의한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제2조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며,⁶⁾ 프랑스의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망명권법(CESDA)」 제L.110-3조는 프랑스 국적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 <https://buly.kr/2Jqeshe>(검색일: 2026.06.23.)

2) Portail lexical. Étranger, <https://buly.kr/DlLuePa>(검색일: 2026.06.23.)

3) Duden. Ausländer, <https://buly.kr/BTS3uCt>(검색일: 2026.06.23.)

4) 알제리에서는 아랍어가 헌법상 국어이자 공식어이며, 2002년과 2016년 개헌을 통해 베르베르어(타마지그트어)도 공식어로 추가되었다. 프랑스어는 법적 지위는 없으나 행정과 교육, 경제 영역에서 사실상의 공용어로 사용된다.

5) The Academy of the Arabic Language. أجنبي, <https://buly.kr/6XoqQhf>(검색일: 2026.06.24.)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https://buly.kr/DaRAGQ7>(검색일: 2026.06.23.)

을 보유하지 않은 자, 곧 외국 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를 ‘étranger’로 명시한다.⁷⁾ 독일의 「체류법(Aufenthaltsgesetz)」 제2조 제1항은 기본법 제116조 제1항이 정하는 독일인이 아닌 모든 자를 ‘Ausländer’로 규정하고,⁸⁾ 알제리의 「외국인의 입국·체류 및 이동 조건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08-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역시 알제리 국적을 갖지 않은 자가 외국인에 해당한다.⁹⁾ 이처럼 네 국가의 법적 정의는 모두 국적이라는 기준에 따라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하는 공통된 구조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동일성의 이면에는 국적 부여 원리의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이 혈통주의¹⁰⁾를 근간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는 출생지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이중적 체계¹¹⁾를 운용하며, 독일은 2000년 국적법 개정 이후 제한적 출생지주의¹²⁾를 도입하였다. 알제리의 경우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식민지 경험에서 비롯된 프랑스와의 복잡한 국적 관계가 존재¹³⁾한다. 따라서 ‘누가 외국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법적 답변은 형식상 동일해 보이지만, 그 경계를 결정하는 실질적 기준은 각국마다 상이하다. Brubaker(1992)가 프랑스의 영토 중심적 국민 개념과 독일의 종족문화적 국민 개념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었듯, 국적 부여 원리에는 각 사회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

나아가 각국의 행정적·통제적 범주의 측면에서 보면, 각국은 외국인 개념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때로는 법적 정의와는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

7) Légifrance-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2021).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https://buly.kr/BpHZrAf>(검색일: 2026.06.23.)

8)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24). 체류법(Aufenthaltsgesetz, AufenthG), <https://buly.kr/H6kJHbV>(검색일: 2026.06.23.)

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26). 국적법(알제리), <https://buly.kr/2Jqet4C>(검색일: 2026.06.23.)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https://buly.kr/4bkWEsV>(검색일: 2026.06.23.)

11) Légifrance-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2026). Code civil, <https://buly.kr/Yh557l>(검색일: 2026.06.23.)

12)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Staatsangehörigkeitsgesetz, <https://buly.kr/NmK69j>(검색일: 2026.06.23.)

13) Citizenship Rights in Africa Initiative(2005). Ordonnance n° 70-86 du 15 décembre 1970 portant Code de la nationalité algérienne modifiée et complétée (2005), <https://buly.kr/7mE9INj>(검색일: 2026.06.23.)

용된다. 한국에서는 ‘재외동포’,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의 행정 범주가 존재하며, 특히 ‘다문화’라는 용어는 법적 외국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가족 배경을 가진 한국 국적자에게까지 적용됨으로써, 법적 지위와 사회적 범주화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서종남 2010). 프랑스는 공화주의적 통합 원칙에 따라 인종·민족 기반 통계 수집을 금지하는 대신 ‘immigré(이민자)’라는 통계 범주를 사용하는데, 이는 “외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나 프랑스에 거주하는 자”로 정의되어 이후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한다(INSEE, 2017: 2). 즉 법적으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사람이 통계적으로는 여전히 이민자로 분류될 수 있다. 독일은 ‘Ausländer’와 구별되는 ‘Personen mit Migrationshintergrund(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라는 범주를 공식 통계에 도입하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국적을 출생 시 취득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착한다.¹⁴⁾ 이 범주는 독일 국적자의 상당수를 포함하므로, 법적 내국인이면서 통계적으로는 ‘이주배경자’로 분류되는 인구 집단을 제도적으로 생성한다. 알제리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세분화된 인구통계 범주를 공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 거주 알제리계 인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중국적자’, ‘하르키(harkis)의 후손¹⁵⁾’, ‘재외 알제리인’과 같은 범주는, 특히 프랑스-알제리 전쟁의 기억과 국적·귀환·보상 정책을 둘러싼 맥락에서 사회적·행정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양미애 2008; 은은기 1998; Pierret 2008). 이처럼 각국의 행정적·통계적 범주는 단순한 분류 체계가 아니라, 프랑스의 공화주의적 통합 원칙이나 알제리의 식민 경험과 같이 각 사회가 이주민을 수용해 온 역사적 경로가 제도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검토는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정의는 국적이라는 명료한 기준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정적·통계적 분류에서는 이미 국적을 넘어서는 범주들, 예컨대 ‘다문화’, ‘immigré’,

14) Statistisches Bundesamt (Destatis). Einwanderungsgeschichte-Hintergrundpapier, <https://buly.kr/2Jqet63>(검색일: 2026.06.23.)

15) ‘하르키(harkis)’는 알제리 전쟁(1954~1962) 당시 프랑스군 측에 가담하여 복무한 알제리계 무슬림 보조병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표현이다. 그러나 오늘날 알제리에서 이 용어는 외국 세력에 동조한 ‘배신자’라는 강한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맥락에 따라 심각한 모욕이나 비난의 표현이 될 수 있다(Muller 1997).

‘Migrationshintergrund’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법적 외국인과 사회적으로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사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범주들의 존재는 국민/외국인의 법적 이분법만으로는 이주 경험, 가족 배경, 문화적 소속, 사회적 인식의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제도적 범주의 바깥에서, 일상적 상호작용 속의 행위자들은 어떤 단서에 근거하여 타인을 외국인으로 판단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적·행정적 범주화와 구별되는 사회적 범주화의 방식, 특히 언어가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외국인성’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2. 외국인성(étrangéité)의 개념 정의와 사회적 범주화

앞 절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이 외국인으로 인식되고 판단되는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외국인성(étrangéité)¹⁶⁾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성은 개인이 보유한 고정된 속성이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적·문화적·사회적 단서에 근거하여 청자 또는 관찰자가 타인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판단으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이 개념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 판단 주체의 인식 과정에 초점을 두며, 외국인성의 유무에 따른 이분법적 구분이 아니라 단서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의 문제로 접근된다. 나아가 외국인성 판단은 각 언어공동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으며, 바로 이 점이 본 연구의 국가 간 비교 설계를 정당화한다. 다만 이 정의는 경험적 조사를 위한 출발점이며, 외국인성을 구성하는 단서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그 문화권별 변

16) 본 연구의 ‘외국인성’은 유사 개념인 ‘이국성’, ‘이방인’, ‘외래성’과 구별된다. ‘이국성’은 장소·문화·사물·이미지 등이 외국적이거나 이색적으로 경험되는 양상과 관련된다(이소영 2022). ‘이방인’은 판단 주체의 인식 과정이 아닌 판단 대상인 인물 유형을 가리키는 명사로, 층위가 다르다(Schuetz 1944; Simmel 1908/1950; 권다남·정상원 2024). 또한 외래성’은 ‘foreignness’의 번역 후보로 제안된 바 있으나(김지운 2025), 문화적·내용적 차이 일반을 가리키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범주와 연결된 판단 과정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는 네 국가(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비교 분석을 거쳐 결론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외국인성을 사회적 판단의 문제로 이해하는 데에 본 연구는 Tajfel & Turner(1979)의 사회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을 특정 집단 범주 안에 위치시키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분이 형성된다. 외국인성 판단 역시 이러한 사회적 범주화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외국인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국적을 가졌는가의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청자 또는 관찰자가 언어, 역량, 이름, 외모, 문화적 행동양식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그를 해당 사회의 구성원 범주와 얼마나 가깝거나 멀게 해석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외국인성을 고정된 속성이 아닌 사회적 범주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때, 이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본 연구는 프랑스어 'étrangéité'¹⁷⁾를 사용하고자 한다. Stavo-Debaugé(2017)는 étrangeté를 단순한 법적 지위나 행정적 꼬리표가 아니라, 특정 공동체에 이미 자리 잡은 구성원들과 새롭게 합류하는 사람 사이에 실재하는 차이, 즉 소속의 조건을 드러내는 사회적 경험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étrangeté가 개인의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 관계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현상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성을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 단서가 외국인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외국인성(étrangéité) 개념은 사회언어학 및 사회학 연구에서 이미 분석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Mondada(1999)는 대화 자료 분석을 통해, 외국인성이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화, 발음, 어휘 선택 등 언어적 절차를 통해 '성취(accomplissement)'되는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 Fernández-Vavrik(2018) 역시 외국인성을 특정 개인이 지닌 속성이 아니라, 일상적 대면 상호작용 속에서 어떤 참여자가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인지 아

17) 본 연구에서는 동일 어원 'étranger'에서 파생된 étrangeté와 'étrangéité'를 구별한다. étrangeté 용어는 익숙하지 않음이나 감각적·심리적 낯섦을 가리키는 철학적 개념으로 논의되고 있어(Bambara 2016),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닌지가 문제화되는 순간 구성되는 사건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외국인성이 맥락과 상황에 따라 활성화되기도 하고 잠복하기도 하는 유동적 현상임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서 외국인성 판단을 단일한 기준이 아닌 복합적 단서의 작용으로 접근하는 배경이 된다.

한편 외국인성 판단 과정에서 언어적 단서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발음, 억양, 말의 속도, 어휘 선택, 문법적 표현, 담화 방식 등은 단순한 언어 형식이 아니라 화자의 출신, 모국어, 교육 배경, 사회적 소속을 추정하게 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Gumperz 1982; Silverstein 2003). 그 중에서도 억양은 외국인성 판단에서 핵심적인 청각적 단서로 작용할 수 있으나, 억양이 강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의사소통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Derwing & Munro(1997)에 따르면 억양(accent),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 이해용이성(comprehensibility)은 서로 관련되어 있으나 동일한 차원은 아니며, 강한 외국어 억양이 반드시 낮은 이해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청자의 외국인성 판단이 실제 의사소통의 문제뿐 아니라 해당 언어공동체가 공유하는 사회적 인식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외국인성은 개인의 고정된 속성이나 법적 지위가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언어적·문화적·사회적 단서를 통해 구성되는 사회적 판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발음과 억양을 비롯한 언어적 단서가 외국인성 판단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설문조사와 음성자료 판단 과제를 통해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 네 국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성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네 국가의 선정은 외국인성 인식의 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교축에 근거하였다. 첫째, 국적 부여 원리의 차원에서 네 국가는 혈통주의(한국), 출생지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이중적 체계(프랑스), 제한적 출생지주의(독일), 혈통주의와 식민 경험이 결합된 체계(알제리)로 구별되며(cf. 2.1), 이는 '누가 외국인인가'에 대한 제도적 경계 설정 방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둘째, 언어 환경의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단일 언어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회(한국, 프랑스, 독일)와 아랍어·베르베르어(타마지그트어)·프랑스어가 공존하는 다언어 사회(알제리)(cf. 각주 4)를 함께 포함함으로써, 청각적 언어 단서에 대한 민감도가 언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주 경험의 역사적 맥락 차원에서 오랜 이민 수용의 역사를 가진 사회(프랑스, 독일), 상대적으로 최근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사회(한국), 식민 지배와 대규모 이주 송출을 경험한 사회(알제리)를 포괄하였다. 이러한 세 축의 교차를 통해 본 연구는 외국인성 인식의 어떤 측면이 국가 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어떤 측면이 각 사회의 제도적·언어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각 국가별 20명, 총 80명으로, 모두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 연구 대상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네 국가의 대학 진학 연령이 비교적 유사하여 연령 조건을 동일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동일 연령대 내 교육 수준의 편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편의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응답자는 대구 소재 대학, 프랑스 응답자는 파리 소재 대학, 독일 응답자는 뮌헨, 뒤셀도르프, 하노버, 마인츠 소재 대학, 알제리 응답자는 알제, 마스카라, 마나바 소재 대학의 재학생이다.

자료 수집은 2026년 5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Google Forms¹⁸⁾를 활용하여 각 국가의 언어로 제공되었으며, 응답자 배경 정보, 외국인 인식, 음성자료 평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응답자의 연령, 성별, 국적, 출생지,

18) 한국 버전 : <https://forms.gle/tmfH5fzdkNvKfY1k7>(검색일: 2026.06.23.)
 프랑스 버전 : <https://forms.gle/mxW4pSPkjAKeUuLZ7>(검색일: 2026.06.23.)
 독일 버전 : <https://forms.gle/KzrVprvgkzLYaTKR8>(검색일: 2026.06.23.)
 알제리 버전 : <https://tinyurl.com/yernt9f5>(검색일: 2026.06.23.)

모국어, 외국어 학습 경험,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 등 배경 정보를 조사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응답자가 ‘외국인’을 어떻게 지칭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으로, 외국인 판단이 법적 지위에 의해서만 구성되는지 아니면 언어적·문화적·신체적 요소와 결합하여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세 번째 부분은 음성자료를 청취한 후 화자가 자신과 동일한 국가 공동체에 속하는 사람처럼 들리는지, 또는 외국인처럼 들리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발음과 억양 등 청각적 언어 단서가 외국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음성자료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다. 첫째,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정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화자의 발화일 것, 둘째, 대본 낭독이 아닌 즉흥적 독백 발화일 것, 셋째, 발화 주제가 일상 경험의 서술일 것, 넷째, 길이가 20초 이상 30초 이하일 것이다. 이는 국가 간 자극의 조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동질화하기 위해 발화의 형식, 주제, 길이를 통제한 것이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국가별 음성자료¹⁹⁾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음성자료는 핀란드 국적 남성이 식당 방문 경험과 음식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내용이며, 프랑스어 음성자료는 영국 국적 남성의 일상적 경험 설명을 담고 있다. 독일어 음성자료의 경우 독일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남성이 시장 방문 경험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알제리 아랍어 음성자료는 시리아 출신 남성이 알제리 정착 이후 습득한 알제리 방언으로 일상생활 관련 경험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단위는 설문지의 각 문항 응답으로, 외국인 지칭 용어, 외국인 판단 기준, 음성자료 평가 결과 및 그 판단 근거로 구성된

19) 본 자료는 인터넷 매체(YouTube, Instagram)에 공개된 영상에서 수집하였다. 화자들의 국적은 영상 및 채널 정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목표언어 숙달도, 정확한 거주 기간, 연령 등의 배경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한국어 음성자료의 화자는 방 송 활동 경험이 있는 인물로, 다른 세 국가의 화자에 비해 목표언어 노출과 사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다. 분석은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정량적 분석은 선택형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별 응답 수와 비율을 산출하여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복수응답이 허용된 문항의 경우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수치를 제시하였다. 음성자료 평가 문항에서는 화자를 외국인으로 판단한 응답과 그렇지 않은 응답의 분포를 국가별로 비교하고, 판단 근거로 선택한 언어적 단서의 유형별 응답 수치를 산출하였다.

정성적 분석은 단답형 문항인 외국인 지칭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 내용을 검토하여 유사한 의미를 지닌 용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국가별 응답 양상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 각 국가별 외국인 관련 용어는 원어 옆에 한국어 사전적 용어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4. 외국인성 판단의 국가별 특성과 양상

4.1. 응답자의 사회언어학적 배경

외국인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사회언어학적 특성을 먼저 살펴보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80명 중 66명이 여성이고 14명이 남성이었으며 대부분 20대로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와 해외체류 경험은 각각 <표 1>과 <표 2>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에서 국가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독일 응답자의 경우 매우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이 1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랑스와 알제리도 매우 자주 또는 자주 접촉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반면 한국 응답자는 가끔 있음(9명)과 드물게 있음(5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4개국 중 외국인과의 접촉 빈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응답자의 외국인 접촉 빈도

단위: 명

	매우 자주 있음	자주 있음	가끔 있음	드물게 있음	전혀 없음
한국	4	1	9	5	1
프랑스	8	8	3	1	0
독일	15	4	0	1	0
알제리	9	5	6	0	0

〈표 2〉 응답자의 해외 체류 경험

단위: 명

	없음	3주 미만	3주 이상
한국	10	1	9
프랑스	10	0	10
독일	9	0	11
알제리	7	0	13

〈표 2〉에 따르면 해외 체류 경험의 경우 네 국가 모두에서 3주 미만의 경험자는 거의 없었으며, 체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와 3주 이상의 체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비교적 균형 있게 나타났다. 특히 알제리(13명)와 독일(11명), 프랑스(10명) 응답자는 3주 이상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은 체류 경험이 없는 응답자(10명)와 3주 이상 체류 경험자(9명)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반드시 해외 체류 경험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해외 체류 경험자의 비율이 다른 국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접촉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각 사회의 다문화적 환경과 외국인 접촉 기회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응답자가 주로 젊은 여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를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4.2. 외국인 지칭어와 인식 분석

외국인 지칭어와 관련하여 네 국가 모두 '외국인'에 해당하는 표현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 분포 양상에는 국가별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응답이 20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2위와 3위 용어인 '외국인체류자'와 '이주민'은 각각 5회에 그쳐 1위와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étranger(외국인)가 16회, immigré(이민자)가 14회 응답되어 1위와 2위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expatrié(해외거주자)도 9회 나타났다. 독일 역시 Ausländer(외국인) 8회, Migrant(이주민) 7회, Person mit Migrationshintergrund(이주배경을 가진 사람) 5회로 상위 응답 간 격차가 크지 않았다. 알제리에서도 اجنبى(외국인)가 11회, مغترب(해외거주자)가 9회, مهاجر(이민자)가 7회 응답되어 상위 세 용어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프랑스·독일·알제리에서는 다양한 지칭어가 사용된 반면, 한국은 특정 표현인 '외국인'에 응답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응답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cf. 4.1)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표 3>²⁰⁾과 같다.

<표 3>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단위: (응답 횟수) 회

기준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
국적	18	20	18	19
출생지	12	12	10	7
혈통	3	3	10	7
부모의 국적	0	3	2	0
언어	10	10	8	13
외모	5	0	0	4
이름	0	0	0	2

20) 본 문항은 3개의 복수응답 문항으로 설계되어 국가별 총 응답수는 60개가 되어야 하나,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 일부 응답자가 3개 미만으로 응답하여 실제 응답수는 프랑스 58개, 독일 49개, 알제리 58개로 나타났다.

기준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
종교	0	0	0	1
문화	6	1	1	5
거주기간	6	11	11	2
합계	60	60	60	60

〈표 3〉에 따르면 국적이 모든 국가에서 가장 높은 응답 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외국인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소속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서 외국인 지칭어로 모든 국가에서 ‘외국인’에 해당하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적 이외의 판단 기준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표 3〉에서 출생지는 한국(12회)과 프랑스(12회)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 수를 보인 반면, 독일(10회)과 알제리(7회)에서는 혈통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랑스와 독일의 국민 개념 형성 과정의 차이를 설명한 Brubaker(1992)의 논의와 일정 부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혈통은 독일(10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국적은 프랑스(3회)에서만 응답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프랑스(11회)와 독일(11회)에서 높은 빈도를 기록한 반면, 한국(6회)과 알제리(2회)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응답자들에게 외국인 여부 판단이 출생이나 혈통과 같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요소에만 근거하지 않으며, 해당 사회에서의 생활 경험 또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모의 경우, 한국(5회)과 알제리(4회)에서만 선택되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전혀 선택되지 않았다. 이는 외형적 특징이 일부 사회에서 외국인 판단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러한 경향이 모든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름과 종교는 알제리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전혀 선택되지 않았으며, 알제리에서도 각각 2회와 1회에 그쳐 외국인 판단 기준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는 한국(6회)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 응답자들이 문화

적 행동양식을 외국인 판단의 근거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에 따르면 언어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주요 판단 기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가 화자의 사회적 배경과 소속을 추론하게 하는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어가 개인의 사회적 소속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원이라고 본 Byram(2006)의 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청각적 언어 단서가 외국인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음성자료 판단 과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4.3. 청각적 언어 단서에 따른 외국인성 판단

청각적 언어 단서가 외국인성 판단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국가별 음성자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표 4〉 음성자료 평가에 따른 외국인성 판단 비교

〈단위: 명〉

	확실히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사람처럼 들린다	아마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사람처럼 들린다	잘 모르겠다	아마 외국인처럼 들린다	확실히 외국인처럼 들린다
한국	6	5	0	9	0
프랑스	1	1	3	13	2
독일	2	0	2	6	10
알제리	13	3	1	2	1

〈표 4〉에 따르면 국가별 응답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자국민으로 판단한 응답자가 11명, 외국인으로 판단한 응답자가 9명으로 나타나 응답이 두 범주 사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없었다. 프랑스에서는 15명이 화자를 외국인으로 판단하였으며, 독일에서도 16명이 외국인으로 인식하여 두 국가 모두 외국인 판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알제리에서

는 16명이 화자를 자국민으로 판단하였고, 외국인으로 판단한 응답자는 3명에 불과하여 다른 국가들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국가별 차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성자료가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정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화자의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성 판단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응답자들이 음성자료에 나타난 발음, 억양, 리듬 등의 언어적 특징을 근거로 화자를 ‘자국민’ 또는 ‘외국인’이라는 사회적 범주 속에 위치시키는 과정, 즉 앞서 2.2에서 논의한 Tajfel & Turner(1979)의 사회적 범주화가 실제 판단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알제리에서 시리아 출신 화자가 자국민으로 판단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성 판단이 화자의 실제 국적보다 해당 언어공동체의 언어적 규범에 얼마나 근접한 발화를 구사하는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음성자료 화자가 방송 활동 경험이 있어 목표언어 노출과 사용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에도,²¹⁾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9명이 해당 화자를 외국인으로 판단하였다는 결과는, 외국인성 판단이 반드시 화자의 언어 숙달도에 비례하여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발음이나 억양과 같은 세부적 음성적 단서가 판단에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외국인성 판단의 근거로 선택한 언어적 단서의 유형별 응답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국가별 음성자료 평가 기준 비교

단위: (응답 횟수) 회

	발음의 정확성	문법	어휘 선택 · 자연스러운 표현	억양 · 리듬	속도 · 끊김 · 머뭇거림
한국	12	7	14	16	11
프랑스	18	6	9	15	12
독일	20	2	6	19	13
알제리 ²²⁾	18	13	13	8	3

21) 각주 19 참고.

〈표 5〉에 따르면 네 국가 모두 외국인성 판단에서 발음의 정확성과 억양·리듬과 같은 음성·운율적 특징을 주요 단서로 활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국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알제리에서는 발음의 정확성이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독일에서는 모든 응답자가 발음의 정확성을 선택하였고(20회), 억양·리듬 역시 19회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프랑스에서도 발음의 정확성(18회)에 이어 억양·리듬(15회)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프랑스와 독일은 판단 기준의 순위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억양·리듬(16회)이 가장 높은 응답 수를 기록하였으며, 어휘 선택 및 자연스러운 표현(14회), 발음의 정확성(12회), 속도·끊김·머뭇거림(11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알제리에서는 발음의 정확성(18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가운데, 문법(13회)과 어휘 선택 및 자연스러운 표현(13회)이 동일한 응답 수를 기록하여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성 판단이 공통적으로 음성·운율적 특징에 기반하면서도, 국가별 응답자 집단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언어적 단서에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네 국가 모두에서 발음의 정확성과 억양·리듬이 주요 단서로 작용한 것은, 발음, 억양, 말의 속도 등 언어적 특징이 화자의 출신과 사회적 소속을 추정하게 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 Gumperz(1982)의 논의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억양이 강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의사소통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Derwing & Munro(1997)의 논의를 고려하면, 응답자들의 외국인성 판단은 실제 의사소통 가능성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언어공동체가 공유하는 언어적 규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연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알제리에서 문법과 어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음성·운율적 특징 외에도 언어 구조적 차원이 외국인성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2) 알제리 설문에서는 일부 응답자가 복수응답 문항에서 요구된 3개 항목을 모두 선택하지 않아 총 응답 수가 55회로 집계되었음을 밝힌다.

5. 결론: 비교 분석을 통한 외국인성의 재정의와 제언

본 연구는 한국, 프랑스, 독일, 알제리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음성자료 판단 과제를 실시하여 외국인성 인식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성 개념을 사회언어학적으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네 국가 모두에서 국적이 외국인 판단의 일차적 기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앞서 2.1절에서 검토한 법적·제도적 외국인 정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별 지칭어 분포와 판단 기준의 차이는 외국인 인식이 제도적 정의를 넘어 각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국적 외에도 출생지, 혈통, 거주기간, 언어, 문화적 행동양식 등 다양한 요소를 외국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제도적 정의와 사회적 인식이 서로 상충함을 의미한다기보다, 국적이라는 법적 기준과 일상적 판단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단서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병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판단 결과의 차원에서는 두 층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화자의 발화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판단되고 특히 알제리에서 법적으로 외국인인 화자가 다수의 응답자에게 자국민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cf. 4.3)은, 외국인성이 화자의 객관적 언어 능력이나 법적 지위가 아니라 각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적·사회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네 국가 모두에서 발음과 억양·리듬과 같은 청각적 언어 단서가 외국인성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으나, 각 사회가 어떤 언어적 특징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는 서로 달랐다는 점에서, 외국인성 판단이 언어적 단서에 의존하면서도 그 작동 방식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성(étrangéité)은 다음과 같이 재정의될 수 있다. 외국인성은 국적이라는 법적·제도적 범주를 포함하지만 그 범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회언어학적 인식으로, 청자가 사회적 단

서와 언어적 단서를 복합적으로 해석하면서 타인을 동일 집단의 구성원 또는 그 집단 외부의 존재로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성은 개인에게 본질적으로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관계적이고 맥락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외국어 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응답자는 외국인 접촉 빈도가 가장 낮고 외국인 지칭어도 단일 표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에서 외국인 인식의 다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성이 언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적 정확성 중심의 접근을 넘어 언어적 단서가 사회적 범주화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인식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외국인성 판단이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는, 다문화 교육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교육 내용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국가별 20명이라는 소규모 표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편의표집 방식, 주로 젊은 여성 집단으로 구성된 응답자 분포로 인해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음성자료를 온라인 공개 영상에서 수집함에 따라 화자의 목표언어 숙달도와 거주 기간 등의 배경 변인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국가별로 단일 자료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으로 확대하고, 성별, 전공 등 응답자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토할 수 있는 규모의 표본을 확보하며, 화자의 숙달도와 배경 변인을 통제한 복수의 음성자료와 시각적 단서를 포함한 복합적 외국인성 판단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외국인성 인식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인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다남 · 정상원(2024). 교육연구방법론으로서 이방인 탐구의 가능성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1), 1-38쪽.
- 김경환(2021). 한국의 이민자 권리 변화에 대한 연구: 이민자 권리의 조건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2), 155-188쪽.
- 김지윤(2025). 1980년대 한국의 반(反)글로벌 상상을 통해 보는 외래성(Foreignness)의 미디어사회문화사 시론, 〈언론과 사회〉 33(1), 116-165쪽.
- 김병록(2020). 이민정책의 법제와 헌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31(2), 1-48쪽.
- 김형기 · 이은채(2025). 외국인 유학생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법학논총〉 38(2), 241-277쪽.
- 김혜영(2015). 다문화 사회의 언어환경과 민족 정체성의 관계: 다문화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문학〉 36, 119-147쪽.
- 서중남(2010).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용어에 관한 연구 - 현황분석 및 다문화교육 관계자 FGI를 중심으로 -, 〈교육문화연구〉 16(2), 145-168쪽.
- 손흥기(2023). 외국인 유학생의 법적 지위 및 유치 확대와 활용방안 연구, 〈중앙법학〉 25(4), 353-394쪽.
- 양미애(2008). 프랑스 사회의 친프 알제리인 지위 문제, 〈아랍어와 아랍문학〉 12(2), 335-354쪽.
- 은은기(1998). 프랑스의 알제리인 이민 노동자의 동일체 의식: 알제리 전쟁(1954~1962)시기를 중심으로, 〈대구사학〉 55, 209-235쪽.
- 이소영(2022). 이태원 한국인 의류상인의 '이국성' 만들기: 이태원의 장소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접근, 〈비교문화연구〉 28(2), 49-96쪽.
- 이현수(2017). 프랑스 공법상 외국인의 지위, 〈행정법연구〉 51, 1-24쪽.
- 황동준 · 김정민(2026). 고려인 이주배경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 정체성 인식과 학교 경험 연구: 아산시 S중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9(1), 155-176쪽.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외국인, <https://buly.kr/2Jqeshe>(검색일: 2026.06.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입국관리법, <https://buly.kr/DaRAGQ7>(검색일: 2026.06.23.)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적법, <https://buly.kr/4bkWEsV>(검색일: 2026.06.23.)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26). 국적법(알제리), <https://buly.kr/2Jqet4C>(검색일: 2026.06.23.)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2024). 체류법(Aufenthaltsgesetz, AufenthG), <https://buly.kr/H6kJHbV>(검색일: 2026.06.23.)

- IOM 이민정책연구원(2015). 이주민 분류방식 및 용어사용의 부차별 차이와 문제점, <https://buly.kr/1y18vRr>(검색일: 2026.06.23.)
- Bambara, R. E.(2016). L'étrangeté de l'étranger: la phénoménologie de l'étranger à partir d'Emmanuel Levinas et de Bernhard Waldenfels. *Anthropologie et Sociétés*, 40(3), pp.103-121.
- Boyer, H.(2017). Introduction à la sociolinguistique. Dunod.
- Brubaker, R.(1992).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Harvard University Press.
- Byram, M.(2006). Langues et identités. Étude préliminaire : langues de scolarisation. Strasbourg: Division des politiques linguistiques, Conseil de l'Europe, pp.5-13.
- Derwing, T. M., & Munro, M. J.(1997). Accent, intelligibility, and comprehensibility: Evidence from four L1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9(1), pp.1-16.
- Fernández-Vavrik(2018). La frontière d'étrangeté. Une étude sur la catégorisation associée à l'origine. Dessiner les frontières, pp.99-116.
- Gadet, F.(2007). La variation sociale en français. Editions Ophrys.
- Mondada, L.(1999). L'accomplissement de l'« étrangeté » dans et par l'interaction: Procédures de catégorisation des locuteurs. *Langages*, 134, pp.20-34.
- Gumperz, J. J.(1982). Discourse strateg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r, L.(1997). La double stigmatisation des enfants de harkis. *Hommes & Migrations*, 1206, pp.44-53.
- Pierret, R.(2008). Les enfants de harkis, entre triple appartenance et double rejet. *Hommes & Migrations*, 1276, pp.88-100.
- Schuetz, A.(1944). The stranger: An essay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9(6), pp.499-507.
- Silverstein, M.(2003). Indexical order and the dialectics of sociolinguistic life. *Language & Communication*, 23(3-4), pp.193-229.
- Simmel, G.(1950).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Free Press.
- Stavo-Debaugé, J.(2017). Qu'est-ce que l'hospitalité ? Recevoir l'étranger à la communauté. Éditions Liber.
- Tajfel, H., & Turner, J. C.(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7.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n.d.). Staatsangehörigkeitsgesetz (StAG).

-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https://buly.kr/NmK69j>(검색일: 2026.06.23.)
- The Academy of the Arabic Language. أجنبي, <https://buly.kr/6XoqQhf>(검색일: 2026.06.24.)
- Citizenship Rights in Africa Initiative(2005). Ordonnance n° 70-86 du 15 décembre 1970 portant Code de la nationalité algérienne modifiée et complétée (2005), <https://buly.kr/7mE9INj>(검색일: 2026.06.23.)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Einwanderungsgeschichte-Hintergrundpapier, <https://buly.kr/2Jqet63>(검색일: 2026.06.23.)
- Duden. Ausländer, <https://buly.kr/BTS3uCt>(검색일: 2026.06.23.)
- INSEE(2016). Pour comprendre... La mesure des populations étrangère et immigrée, <https://buly.kr/EoqSX1b>(검색일: 2026.06.23.)
- Légifrance-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2026). Code civil, <https://buly.kr/Yh557l>(검색일: 2026.06.23.)
- Légifrance-Le service public de la diffusion du droit(2021).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https://buly.kr/BpHZrAf>(검색일: 2026.06.23.)
- Portail lexical. Étranger, <https://buly.kr/DlLuePa>(검색일: 2026.06.23.)

필자소개

성 명 김희경
소 속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hkim2016@knu.ac.kr

성 명 박선제
소 속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artsunjay@gmail.com

성 명 권현진
소 속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khjin2025@gmail.com

성 명 김주연
소 속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juyeon37@hanmail.net

성 명 다후네스린
소 속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dahounesrine50@gmail.com

성 명 정연우
소 속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전자우편 halehail@naver.com

■ Abstract

How is Foreignness (étrangéité) Defin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France, Germany, and Algeria -

Kim, Hee-kyung · Park, Sun-jay · Kwon, Hyun-jin ·
Kim, Ju-yeon · Dahou, Nesrine · Jeong, Yeon-w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how foreignness (étrangéité) is constructed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rough a case study approach and seeks to redefine it sociolinguistically. Surveys and audio-based judgment tasks were conducted with 20 university students per country from South Korea, France, Germany, and Algeria. Nationality was the main criterion, while birthplace, ancestry, residence, and language also shaped perceptions. Pronunciation, intonation, and rhythm were key cues, though their influence varied by context. Foreignness is redefined as a relational, context-dependent concept formed through interpreting social and linguistic cues, suggesting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and language education.

[Key words] foreignness, foreigner,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sociolinguistics

투고일 2026. 06. 25 / 심사일 2026. 07. 16 / 게재확정일 2026. 07. 25
--